

“장애인친화 도시 만드는데 최선 다할 터”

광주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가족 등 1000명 참석·유공자 포상

광주시는 지난 17일 서구 염주동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새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기념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주제로 열렸으며, 고광원 행정부시장은 비롯해 장애인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유공자 표창(10명)과 공로패(1명), 감사패(1명) 수여가 이뤄졌다.

또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아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푸드트럭과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고광원 행정부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아우러지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장애인고용촉진지원사업과 장애인고용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장벽과 제도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7일 서구 염주동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취임 “환경복지·재생에너지 여건 확대·탈탄소 구현”

김영민 제35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52·사진)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영민 신임 청장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를 시작으로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대기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 하는 탈탄소 녹색대전환, 지역민이 공감하는 환경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구현,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공감형 환경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무공해차 보급, 탄소

흡수원 발굴 등 에너지 위기에도 튼튼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오염원과 녹조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망 구축, 국민안전 중심의 하천환경 조성 등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기후·에너지·환경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도, 의료급여 실무자 워크숍… 현장 대응력 강화

재가의료급여·부당이득금 관리 수급자 6만8000명 맞춤 지원

전남도가 의료급여 실무자의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며 저소득층 의료복지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16~17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의료급여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실무 역량 강화와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의료급여 담당자 64명이 참석해 재가의료급여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수급자 6만8000여명의 건강할 삶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특별한 생일상을 마련하며 따뜻한 봄날의 정을 나눴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협의체는 최근 수산4리 마을회관에서 90세 이상 어르신 4명을 모시고 첫 생일잔치를 열었다. 생일상에는 미역국과 잡채, 수육 등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고, 주민들과 위원들이 함께 축하하며 웃음이 이어졌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르신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되살아난 공동체의 정을 느끼게 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전남도는 16~17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의료급여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실무 역량 강화와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점검했다.

실무 중심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장 참석자들은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료급여 담당자는 “부당이득금 관

리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고, 재가의료급여 운영 방향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가의료급여를 통해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외식업 등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과 유학생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등 비자·체류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은형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소상공인 및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요건 및 유학생

취업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민생경제 이민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임은진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아흔의 봄’ 함께 차린 생일상에 ‘웃음꽃’ 영암 도포면지사협, 90세 이상 어르신 4명 생일잔치

영암군 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진중·정점순)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상을 마련하며 따뜻한 봄날의 정을 나눴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협의체는 최근 수산4리 마을회관에서 90세 이상 어르신 4명을 모시고 첫 생일잔치를 열었다. 생일상에는 미역국과 잡채, 수육 등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고, 주민들과 위원들이 함께 축하하며 웃음이 이어졌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르신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되살아난 공동체의 정을 느끼게 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어르신들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며 환한 웃음으로 답했다.

이번 ‘어르신 생일잔치’는 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3개년 특화사업으로, 올해 수산4리를 시작으로 26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생일을 함께할 예정이다.

정점순 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 곳곳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 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수산4리 마을회관에서 90세 이상 어르신 4명을 모시고 첫 생일잔치를 열었다.

게시판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시지부 2026년도 정기총회=4월 28일(화)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 갈빈연. 광주·전남·전북 공군예비역 누구나. 문의 010-2115-0945.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운세 (음력 3월 4일)

- | | | |
|---------------------------|----------------------------|--------------------------|
| 48년생 작은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 49년생 손재운이 따르니 돈 관리 잘하라 | 50년생 재물로 형제간의 다툼을 조심하라 |
| 60년생 참으로 난감할 수다 | 61년생 외의 재물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 62년생 승산 있으니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
| 72년생 생각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 73년생 애인에게 오해 받을 가능성이 많다 | 74년생 주라 갔다가 오히러 받고 오는 일태 |
| 84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행해야 할 때 | 85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다 | 86년생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밀어 부쳐라 |
| 96년생 이해야 귀하의 진심을 알아준다 | 97년생 금전적인 고통이 따른다 | 98년생 이생 관계 무조건 좋은 날 |
| 51년생 별 외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 52년생 시작 하지 않음만 못하다 | 53년생 경사가 연발할 운이라 |
| 63년생 그동안 공들인 일이 성사 될 것이다 | 64년생 길이 아니면 신이 될 것이다 | 65년생 성과는 미미해도 그 의미는 크다 |
| 75년생 과욕은 미래의 아픔을 예고한다 | 76년생 좋은 결과 있으니 진중하게 진행하라 | 77년생 내버려둬도 다 알려지게 돼 있다 |
| 87년생 친구·동료를 비방하지 말라 | 88년생 급한 마음이 일을 그르친다 | 89년생 순용함이 유익하다 |
| 99년생 타인과의 말 다툼을 조심하라 | | |
| 54년생 진행 중이던 일이 막혀 고민할 운 | 55년생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 56년생 외출을 삼가한다면 면역 하겠다 |
| 66년생 김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 67년생 말을 아끼면 신이 될 것이다 | 68년생 적당한 운동과 휴식으로 충전하라 |
| 78년생 김성이 비취 생기발랄한 판도가 된다 | 79년생 참된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 80년생 경쟁사와 시험에 이길 승산이 있다 |
| 90년생 술과 밥이 생기는 좋은 시기다 | 91년생 더 높은 곳을 쳐다 보라 | 92년생 지만심은 금물이니 겸손하라 |
| 57년생 지인과의 다툼이 관계수로 발전한다 | 58년생 가족 도움으로 구제 될 것이다 | 59년생 일은 해결되니 말을 조심하라 |
| 69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가조임을 알아라 | 70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아라 | 71년생 자녀의 말썽으로 힘든 운 |
| 81년생 유익한 일을 함의 불 희망이 보인다 | 82년생 예전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 83년생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
| 93년생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해 있다 | 94년생 공부 이상 교제 모두 원만하지 못할 운 | 95년생 못지 않던 운동 받을 운이라 |